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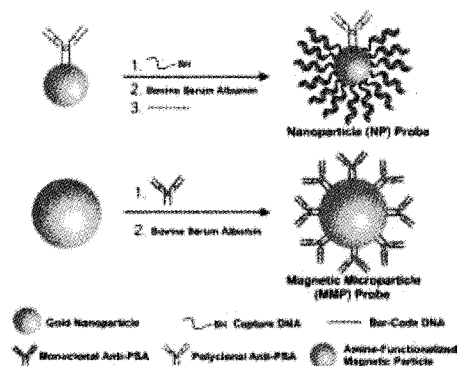
바이오산업 분류를 코드화하여 국가표준으로 제정!

바이오의약, 바이오환경 등 8개 항목으로 분류

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신뢰성 있는 통계분석자료에 의해 국가 정책 및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바이오산업 분류를 코드화하여 국가표준(KS)으로 제정하였다고 기술표준원이 발표하였다.

지금까지 바이오산업분야 세계시장은 '00년 540억달러, '05년에 910억달러로 연간 14%의 성장을 이루며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고, '05년 국내 바이오산업 총 수급규모도 전년대비 15.2% 증가한 3조 5,626억원 규모로, 연간 평균 14%씩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.

그러나 바이오산업은 화학·의약·식품·환경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한국 표준산업분류 체계에 의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을 어렵게 하고, 기초 통계자료의 부족은 바이오산업 국가정책 및 예산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와는 다른 별도의 표준화된 바이오산업분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.



금번 KS M 1000(바이오산업 분류 코드) 제정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예산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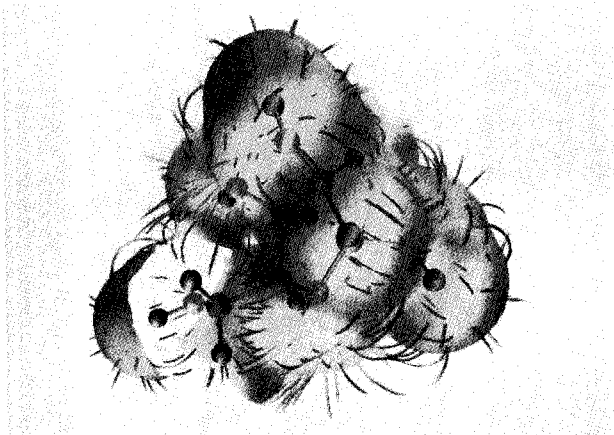
아울러, 바이오산업 분류코드의 국가표준제정으로 바이오산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사용하는 이용기관에서 통일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바이오산업 관련 통계작성의 표준화된 근거를 제시하여 경제구조·산업구조·타 산업과의 관계 등에 대한 분석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.

본 분류코드의 분류대상 및 정립기준은 OECD 산업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를 반영하고, 기업들이 바이오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기반으로 연구개발 및 생산, 서비스단계에 바이오공학 기술이 이용된 산출물의 특성에 따라 바이오의약, 바이오화학, 바이오환경 등 8개 항목으로 하고 이를 다시 각각 나누어 총 51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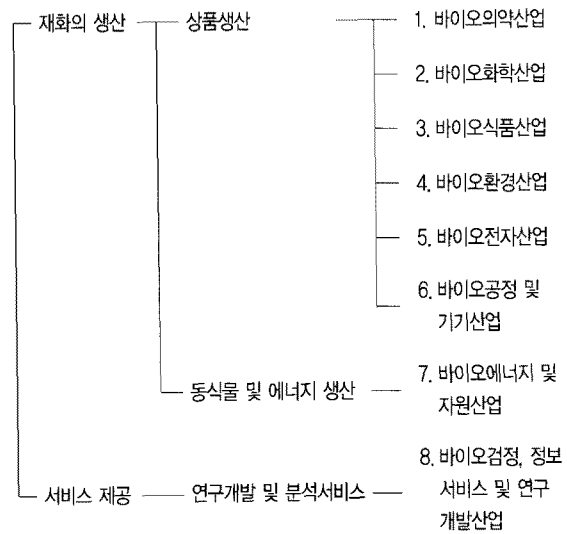
또한, 부속서에는 바이오산업의 범위 설정에 활용되는 생물공학기술에 대한 분류코드도 함께 수록하여 미래 바이오산업 및 생명공학기술의 발전 비전을 반영하고자 하였다.

금번 바이오산업분류체계의 국가표준 제정에 대해 산업연구원의 최윤희 박사는 “OECD 각 회원국에서도 바이오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이오산업분류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꼭 필요한 것”이라면서 “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체계적인 산업 지원으로 바이오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”고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.

기술표준원은 바이오산업분류코드의 표준화 추진으로 바이오산업의 성장기반을 확립하여 국가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

[바이오산업 분류코드 구조도]



[생명공학기술 분류체계도]

